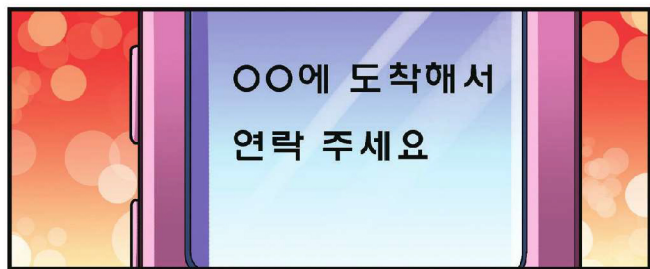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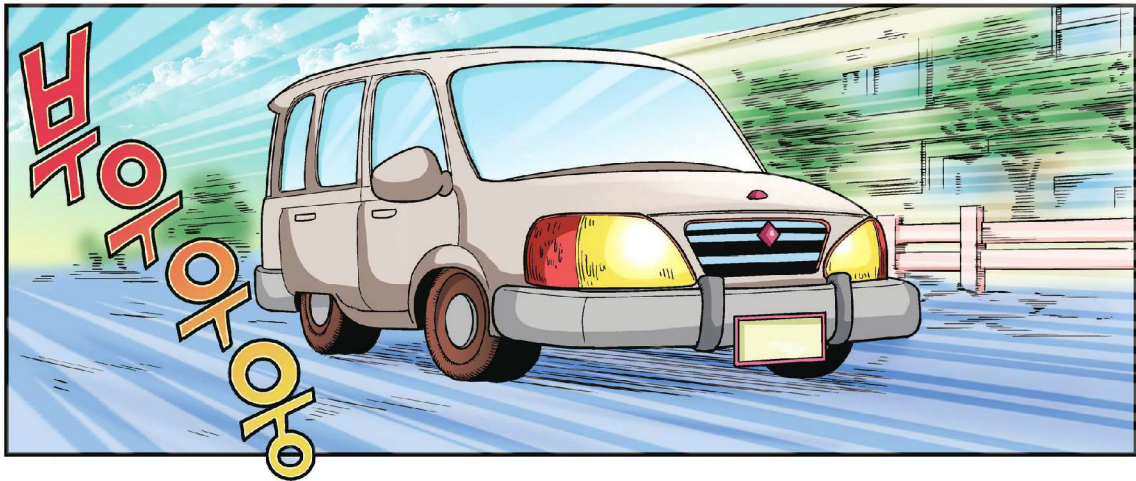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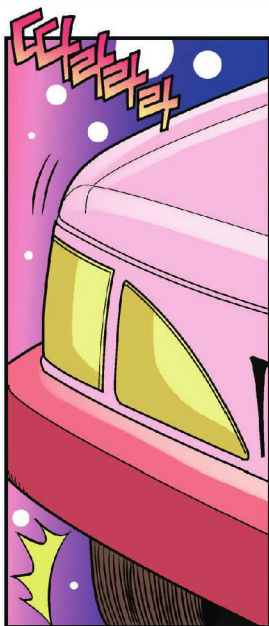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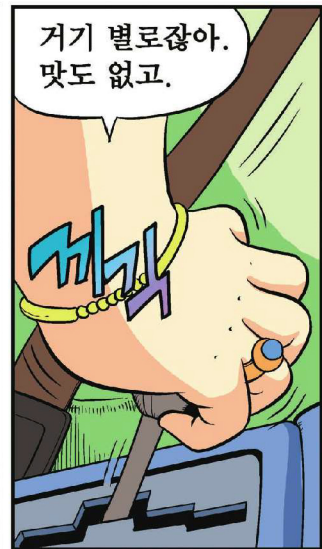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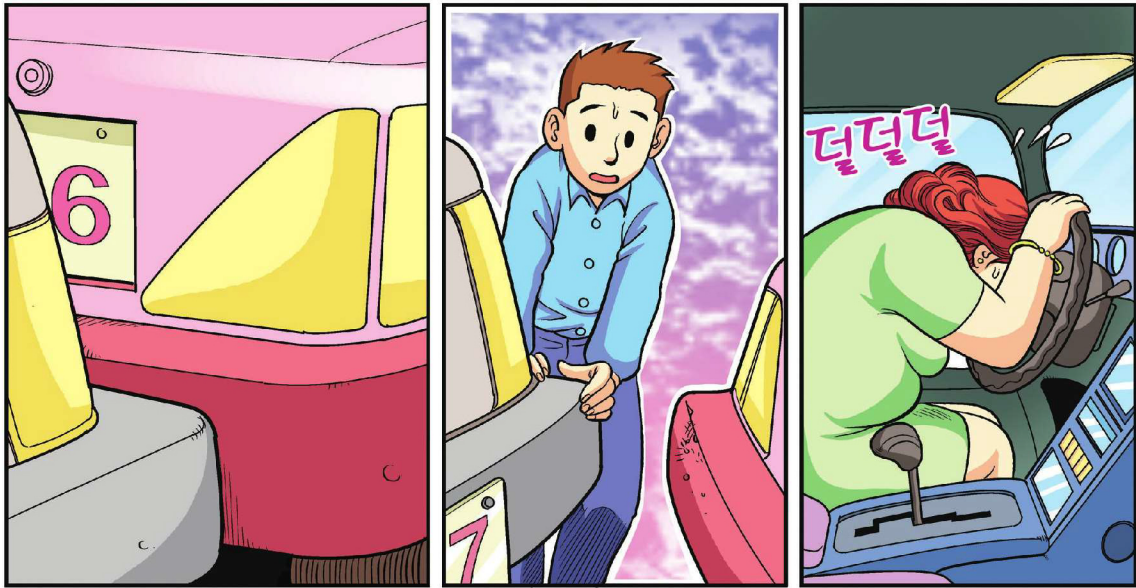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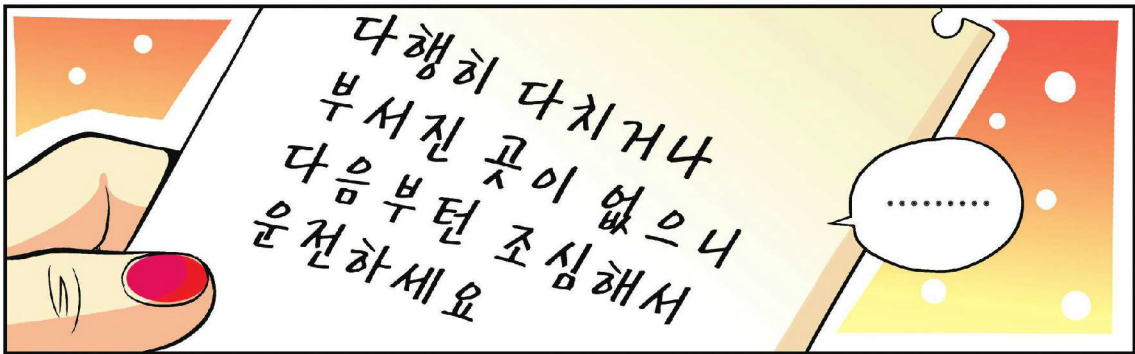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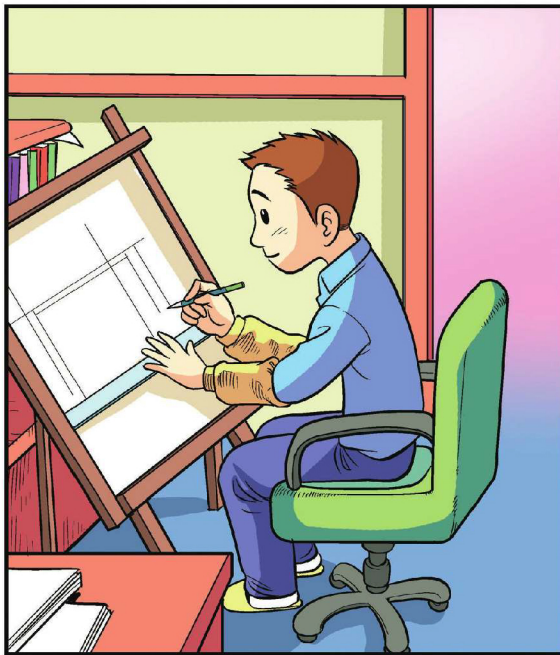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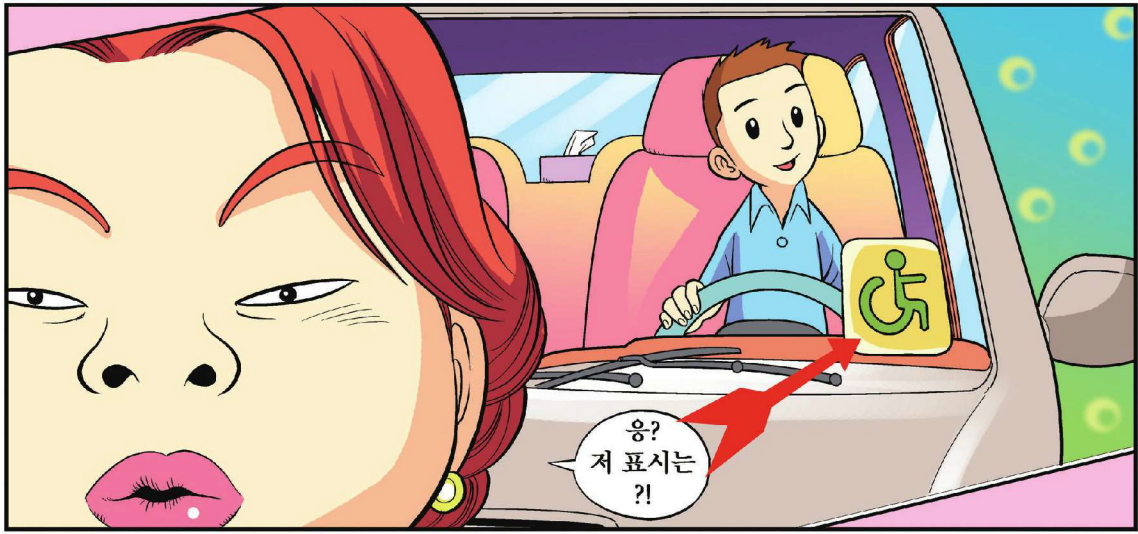
5. 진실은 언제나
가까이에 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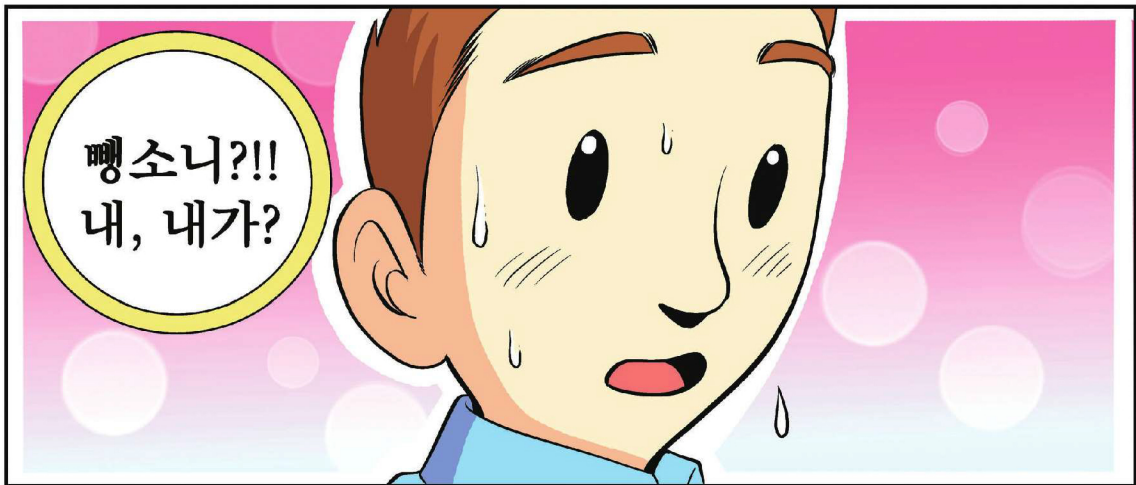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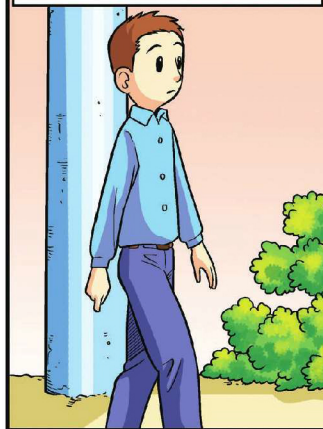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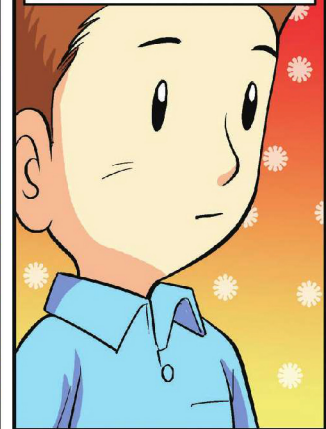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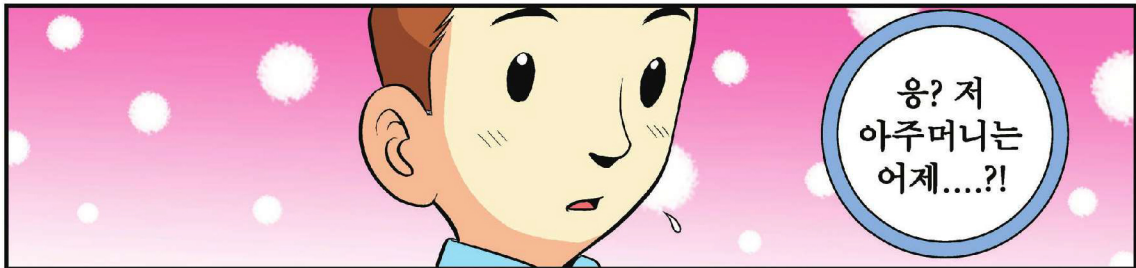


동료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부담주기 싫어 혼자 가기로 했다.



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행정착오라고 생각했으니까.







청각장애인 이세요?



어쩐지 그렇게 불러도 그냥 가더라~



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운전을 해요? 혹시 무면허 아니에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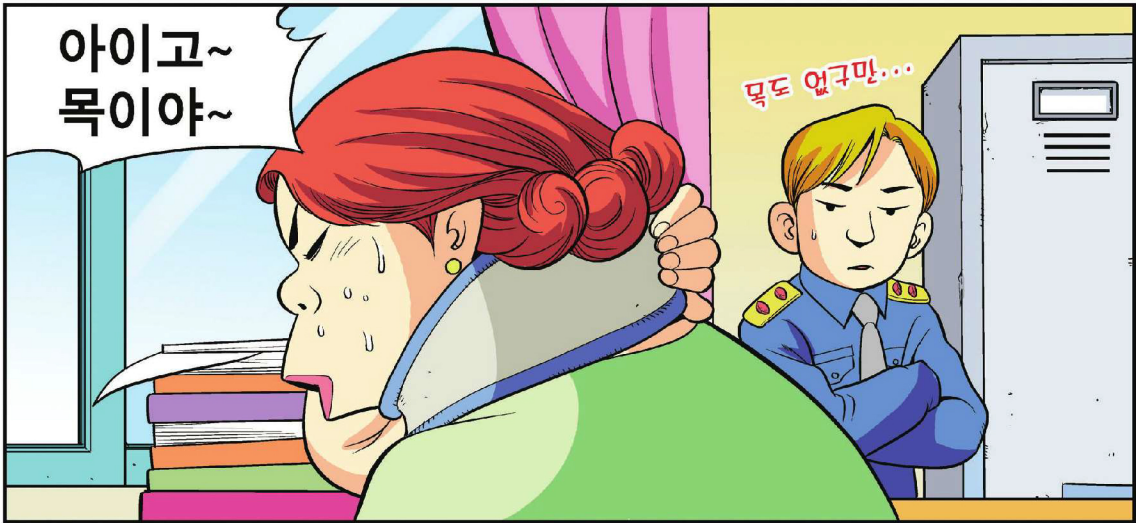
조용히 하세요! 귀로 운전합니까? 눈으로 하지.

그건.. 아니지만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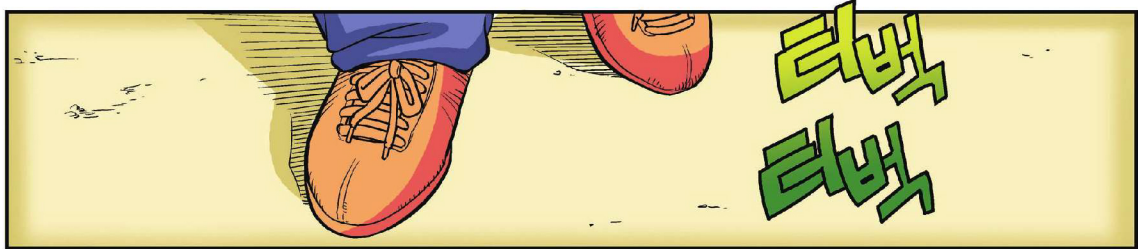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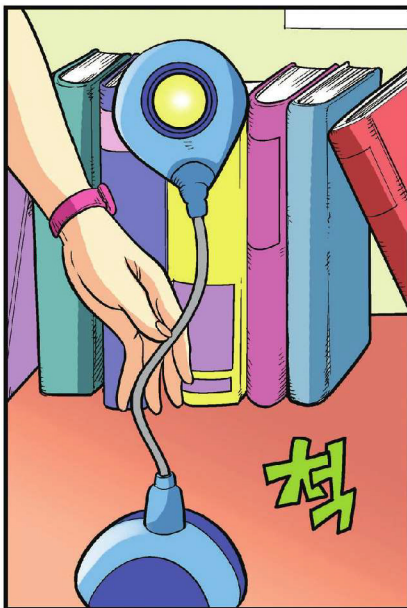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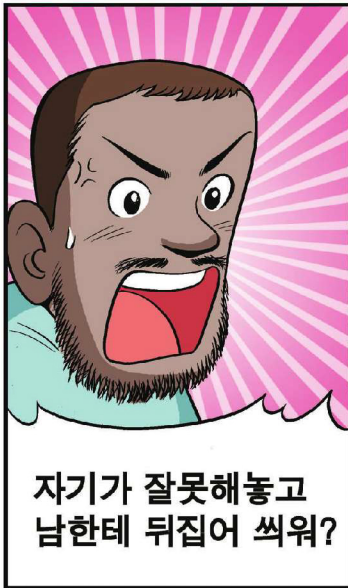
오해와 편견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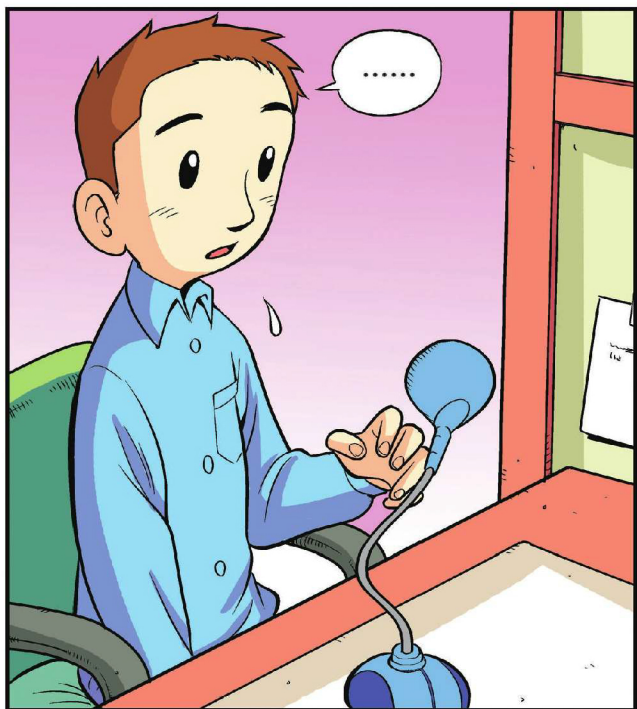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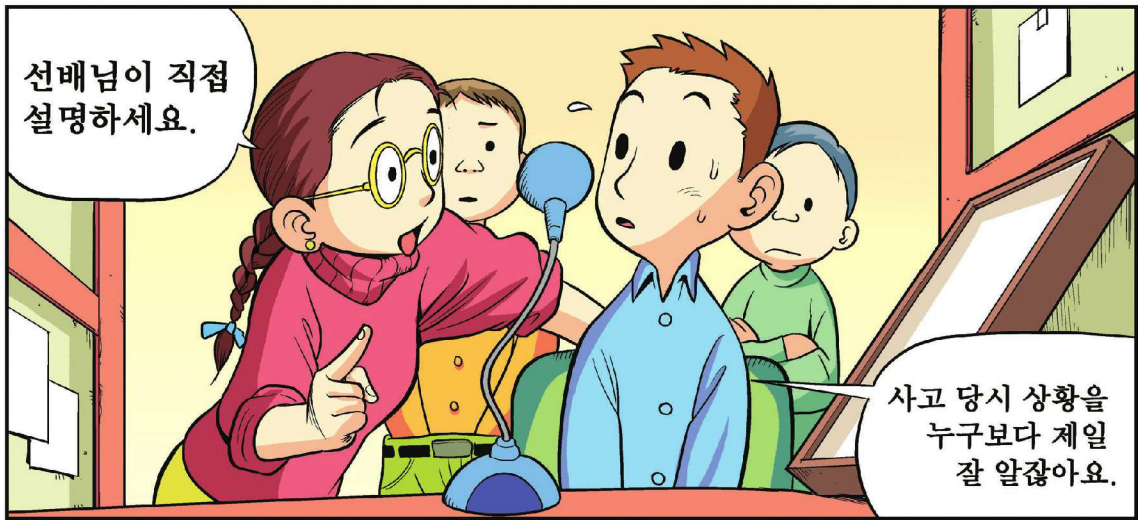
이 두 단어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할 명예와도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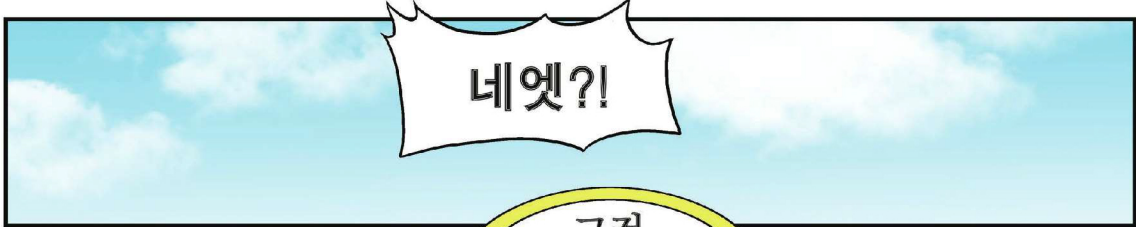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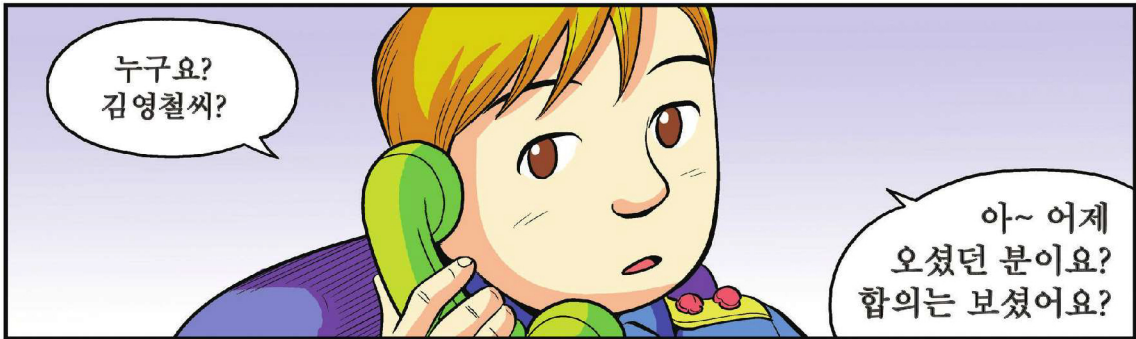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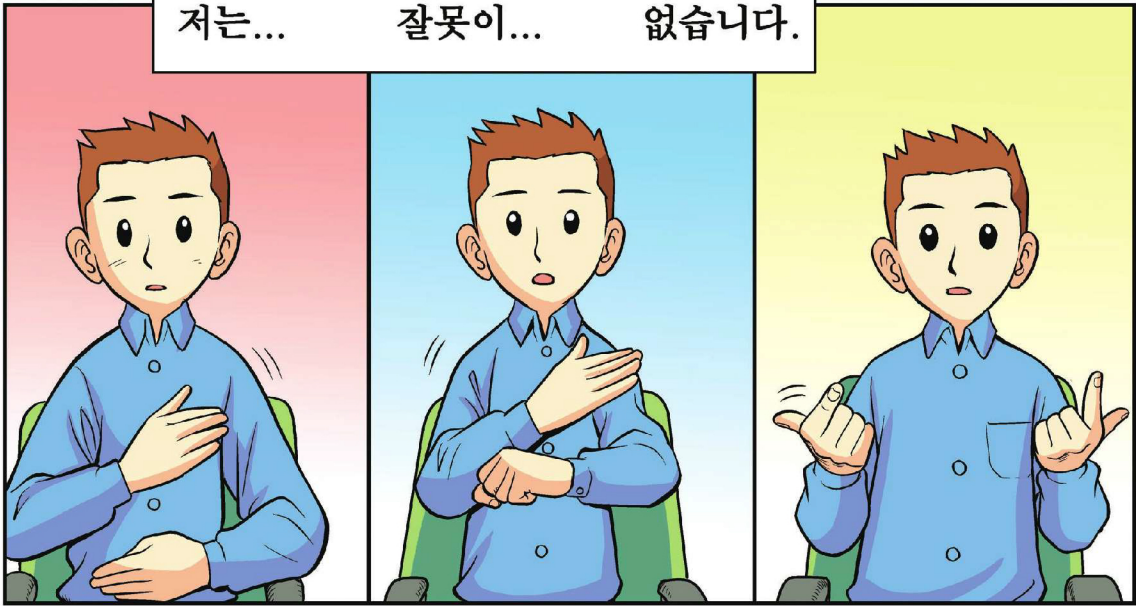








저는... 잘못이... 없습니다.



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어제는 경황이 없었습니다.



하긴...



청각장애가 있는 사촌 언니가 사용하는 걸 봤어요.



